

오방색 나무에 새긴 '반야심경'

법흥사 5월 13일까지 안강수 초대전

불교 미술의 꽃인 서각(書閣)은 번뇌와 망상의 일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단순히 글을 새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작가 자신의 혼을 불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조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온 안강수 보광불교조각연구소장(지정문화재 조각가 제1360)은 법흥사 야외전시장에서 '봄을 여는 평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5월 13일까지 서각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한문 <반야심경>과 <도덕경> 등 안강수 소장이 평소 좋아하는 불교 경전과 글귀들을 하나하나 서각하고 화려한 오방색(五方色)의 색감으로 뒤틀린 작품을 비롯한 목조불상과 목조달마상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조각의 세계는 이미 많은 정서적 호환이 있어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서각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안강수 소장은 목조각은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예술의 분야이지만 서각은 그 맥이 점점 끊어져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안 소장은 전통서각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자 했다. 색·형·선의 조화와 입체감이 더해진 조형서각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고민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정신이 강한 작품들로 새긴 질의 맛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주요점을 두었다. 한 작품에 양각·음각·판각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서각을 선보이려는 하 면



오방색을 칠한 나무위에 한문 반야심경을 서각한 안강수 소장의 작품 '반야심경'

무의 곁을 살려 그 위에 연꽃의 잎모양을 그리는 등 자연친화적 작품을 선보인다. 100년이 넘는 사찰토기와를 구해 그 위에 서각을 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안 소장은 "이제 서각이라는 장르도 나무에 새김질을 하는 물리적 행위를 벗어나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술행위로 나아가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각 초대전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평화로운세상만들기(이사장 도완)의 청소년 교육지원 기금으로 마련된다. 모금된 기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아카데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법흥사(주지 도안)는 3월 30일 법흥사 흥년선원을 개장한 직후 절중 국사의 헌다례를 봉행했다.

헌다례와 서각전을 주최한 도완 스님은

"오늘날 세련된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 특별한 것만을 좇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며 "이번 서각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우리 곁에 있던 것들이었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어서 예술가의 깊은 맛이 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평화로운세상만들기는 '내안의 평화를 만들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법흥사 주지 도안 스님이 발기인으로 2009년 창립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 '나' 바로알기 명상프로그램 > 청소년 평화캠프 > 평화아카데미 > 대국민 의식 개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33)374-9177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무명(無明)



겨울이었다. 혼자서 야간산행을 한 적이 있다. 일출을 바라보는 마에불을 찍기 위해 아침 해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야 했다. 전날 낮에 올라갈 길을 익히고 내려왔다. 40분 길이었다. 다음 날 오전등 하나를 들고 새벽길을 나섰다.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엔 나 밖에 없었다. 나 밖에 없는 새벽길은 무서웠다. 어둠은 내가 알던 어둠이 아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어둠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두려움이었다. 낙엽이 내는 소리마저도 무서웠다. 길은 걸을수록 어두웠고, 일출은 너무나 멀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앞뒤로 어둠뿐이었다.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걷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날이 밝기 시작했다. 어둠의 턱 밑에 아침 해가 있었다. 전날 걸었던 길과 다음날 새벽에 걸었던 길은 같은 길이지만 다른 길이었다. 무명이 갈라놓은 길과 길이었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천경해원 선사 '병든 스님에게 보임 [示病偈]'

아파하는 놈이 뵈고

四大本來空 (사대본래공)
痛者是甚麼 (통자시심마)
病中不病者 (병중불병자)
巖前綠水聲 (암전록수성)

사대란 본래 공한 것이거니
아파하는 놈이 뵈고.
아는 중에서 알지 않는 것
바위 앞의 푸른 물소리라네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스님은 당시 불교계에서 이해되고 있던 삼종선(三宗禪)과 다른 이설(異說)들을 비판하고 여래선과 조사선, 의리선과 격외선의 이중선(二種禪)으로 분류하는 등 선 수행의 핵심주제를 간명하게 설교했다. 이는 선사로서의 면모와 더불어 불법의 대의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학에도 진력한 결과인데 이는 '시심마(是甚?)'라는 화두를 주제로 하여 병든 스님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백장 선사가 어느 날 설법을 마치고 대중

이 모두 범당에서 내려가자 갑자기 도로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모두 고개를 돌리자 백장선사는 "이뵈고"라고 하였다. 이는 대중이 자신의 실법으로 불법을 알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불리 의문을 던진 것이다. 스님은 응병어약(應病與藥)으로 "이 뵈고" 화두를 주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본래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것으로 인연이 흩어지면 사대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는 주체가 없다는 공

사상을 그려내었다. 이어 병으로 앓고 있는 스님에게 '아프다고 느끼는 그 놈이 뵈고'라고 화두를 들려 하였다. 화두를 지어가는 방법을 일러 준 것이다. 나아가 앓는 중에 알지 않는 자리, 즉 스님의 한 소식을 말구에서 보여 주었다.

'바위 앞의 푸른 물소리'는 그저 평범한 주위에서 항상 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소리는 실체가 없으며 바위와 비탈 등을 만나 소리를 낼 뿐인 것이다. 우리의 사대뿐만 아니라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이러한 인연화합의 이치 속에서 생주이멸(生住離滅)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봄바람에 매화가 망울을 터뜨리듯이 말이다. 간명한 시구 속에 배풀어져 있는 것은 선승의 지극한 자비심인 것이다.



원법 스님(은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아사리)

충남 장곡사 괘불탱 전시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국보 제300호인 충남 장곡사 괘불탱화가 일반에 공개된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21일까지 장곡사 괘불탱을 전시하는 제26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장곡사 괘불은 1673년에 조성된 것으로 주존을 중심으로 등장 권속이 삼단으로 열을 지어 정연하게 구성돼 있다.

괘불탱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주존이 입상의 형식으로 있으며 좌우 여백에는 대칭을 이루도록 권속을 배열했다. 권속은 상단의 4여래와 4보살좌상, 중단의 2여래와 2보살입상, 하단의 사천왕과 천부중으로 구분된다. 중심인물 주변으로는 제자와 나한 등을 배치했다.

화면을 압도하는 크기의 본존은 왼손으로 연꽃 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줄기 끝을 살짝 받치고 있다. 머리에는 화염(火焰)으로 장식된 보관(寶冠)을 썼으며 보관의 끝에는 흰 관대(冠帶)가 좌우측 어깨 위로 늘어뜨려지고 있다.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영락(瓔珞)으로 신체를 장엄한 장엄신(莊嚴身)을 주존으로 하는 이 괘불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충청지역의 괘불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보박물관은 "이는 앞선 시기 대체로 대웅전(大雄殿)의 중심 불화와 유사한 도상이 조성된 것에서, <장곡사 괘불>은 점차 입상 형식의 장엄신이 유행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55)382-1001 이나는 기자



장곡사 괘불탱, 1673년, 마본채색, 809.0 X 566.0cm, 국보300호

唯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이란 뜻?

- 약인욕로지 若人欲了知
-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一切唯心造] 오직 식뿐 [萬法唯識] 입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목경찬
불광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각원사·능인선원·삼광사·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그리고 카르마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에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로이 저
허우성 옮김
240면 / 15,000원

목경찬 저 | 264면 | 15,000원

www.bulkwang.co.kr | @bulkwang_c | www.facebook.com/bulkwang